



전주시 '2023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세계평화의전당서 개최

기사승인 [2023-09-22 10:29]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가을 공연, 오는 10월 6일~7일 이틀간 세계평화의전당에서 개최
멘델스존과 글리에르, 슈베르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식 작품이 가을밤 관객들 맞이할 예정
전주시민들의 클래식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제7회 '2023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깊어 가는 전북 전주의 가을
밤을 더욱 풍요롭게 물들인다.

전주시는 '2023 전주 비바체실내악축제'(조직위원장 조화림)의 가을 공연이 오는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고 22일 밝혔다.

전주 비바체실내악축제는 현대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도시브랜드를 강화
하고, 전주시민들이 정통 클래식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열

리고 있다.

올해는 최은식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이번 가을 공연에서는 이틀간 멘델스존과 글리에르, 슈베르트, 생상스, 마스카니, 마스네 등의 세계적인 작품이 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다채로운 공연과 연주를 통해 올해 비바체 실내악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가족음악회가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 세계평화의 전당 중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화림 전주비바체실내악축제 조직위원장은 "10월 6일과 7일의 가을 연주회는 치명자산을 어루만지는 가을의 산들바람이 전주 세계평화의 전당 중정으로 내려와 우리 모두에게 음악과의 진정한 해후를, 활력 넘치는 삶과 행복으로 가는 긴 탐색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에 10월 6일 전 좌석 250석과 7일 전 좌석 1100~1200석 전 공연은 선착순 무료로 진행된다.

박윤근 기자 bule2737@hanmail.net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